

국민의당 광역단체장 후보 국민 참여 경선

기획단 구성안 오늘 최고위 보고...지방선거체제 조기전환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청년·여성 확대·결선투표제 추진

국민의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로 방향을 잡는 등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을 잠정 결정하고 지방선거 제도로 조기 전환한다.

12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 제2창당위원회 산하 지방선거기획단 준비위원회는 공천자격 기준과 경선규칙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오는 13일 최고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방침이다.

준비위는 우선 공천 룰과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경선 과정에 참여시켜 주목도를 높이고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최대화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참여경선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으로 문호를 개방, 흥행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추진이 확정되면 입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당 지도부는 각 지역 사정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곳에서는 조기 공천을 실시해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승리 가능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개혁공천’의 기초 아래 신진 인사를 대거 등용하고 청년·여성 공천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려 정식 가동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6개월 전이나 지방선거 기획단이 출범한다는 점에서 당을 지방선거 체제로 조기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최근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론’ 등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이 분출하며 어수선했던 당내 분위기를 추스르겠다는 지도부의 중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

터 4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정책성과 진로를 논의하는 ‘끝장토론’을 갖기로 했다.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는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론에 대해 내부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내부의 통합파와 반대파 간의 간극이 넓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날 의원총회에서 감정 섞인 충돌이 벌어진다면 국민의당 내홍 사태는 또 다른 정계 개편을 부를 수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 진영과 호남 의원들 간의 정면충돌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공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원총회 이전에 접점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MB, 바레인 출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레인을 방문하기 위해 12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지 각료 및 바레인 주재 외교사절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與, 입법차질 우려에 ‘예산 부수법안’ 우회카드 만지작

지정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자동부의...野 공조 ‘관건’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후반부로 접어들어 상황에서 주요 개혁 과제 입법 차질이 예상되자 ‘예산 부수 법안’ 카드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구조적 한계 탓에 핵심 개혁 입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 일각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상임위를 패스할 수 있는 ‘입법 루트’, 즉 예산 부수 법안 지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법

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고민하는 법안은 법안제법 개정안 등 세법 관련 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제법 개정안(정부안)은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2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세출 관련 법안 역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 출석 과반의 찬성표를 확보하면 통과된다. 민주당(121명)이 국민의당(40명), 정의당(6명)과 잘 공조하면 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협조해 줄지는 미지수다. /김형호기자 khh@

429조 ‘예산 혈투’ 돌입

이번주 예결소위 가동...공무원 증원·복지예산 등 ‘천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소위원회를 가동, 429조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지난 한 주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의 ‘전초전’을 거친 여야가 예결소위의 삭감·증액 ‘칼질’ 과정에서 실질적인 예산 전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맡는다. 최대 15명으로 구성된 여야 의원이 소위에 들어가 각 당의 예산 목표 관철을 위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는 상임위원 예산심사 등을 토대로 펼치는 소위 활동을 이달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상임위원 예비심사와 예결위 부별 심

사 등을 토대로 예산안 소위 활동이 이뤄진다”며 “소위는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계속되는데, 12월1일에는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11월30일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로는 지금까지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위원회 등 4곳에서 예비심사가 끝났다. 여야 간 예산전쟁은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에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강제한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도입됐지만, 내년 예산안이 시한을 지켜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각종 복지예산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도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박지경기자jkpark@

한국당 본격 주도권 싸움

洪, 복당파와 보수혁신...친박계 ‘비홍 연대’ 추진

자유한국당 내전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의원총회부터 시작해 12월 원내대표 경선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홍준표 대표 측과 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당내에서는 홍 대표와 김무성 의원 등 22명의 복당파가 손을 잡고 ‘보수 혁신’ 프레임으로 친박제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친박계는 홍 대표 당 운영방식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을 끌어모아 ‘비홍(非홍준표)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내전의 서막은 최근 단체 복당 조치에 반발해 친박계가 소집한 13일 의원총회다. 양측 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대표와 복당파가 구체적으로 손을 잡는 첫 무대는 12월 중순께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이 될 전망이다. 새 원내사령관 선출 이후 진행될 핵심인 서정원·최경환 의원의 제명 여부도 양측이 격돌할 주요 고지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당무 감사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불씨가 될 수 있다. 홍 대표 측이 이를 통해 ‘친박 정산’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어 양측의 갈등은 지방선거 공천국면에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소병훈 “5·18 진압 군경 정부 표창 박탈해야”

특별법 개정안 발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군경이 받은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18 진압 공적이 인정돼 받은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 따라 지난 1998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8명에게



수여된 훈장과 포장이 취소됐지만 훈장과 포장에 대해 대통령령 표창, 정부 표창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

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 의원은 지난날 31일 국정감사에서 “최소 10명 이상이 정부 표창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국의 신속한 표창 박탈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jkpark@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 ~ 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정 시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학지로 36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일반대학원	박사	코칭심리학과(D.Psy.)	5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A.)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